

## 제사장 직분

출애굽기 28:1-43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예측하게 합니다. 찬양대 옷을 입고 있으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잠옷을 입고 있으면 잠을 자겠지요. 추리닝을 입으면 곧 운동을 할 것입니다. 작업복을 입으면, 무엇인가 일을 할 것입니다. 제사장 일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옷을 입습니다. 아름답고, 영화롭고, 거룩한 옷이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이 옷을 입고 아름답고, 영화롭고, 거룩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과 옷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 합니다. 오늘은 이 제사장 직분을 살펴보는 가운데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 1. 나의 죄를 짊어지심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의 직분이 죄의 문제를 담당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출28:38) 특별히 죄를 짊어진다는 표현이 나옵니다.(출28:43) 그러나 그의 어깨에는 비참한 죄가 아니라 찬란한 모습이 있습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들의 이름을 여섯 명씩 두 보석에 새겨 양쪽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출28:9-12)

야곱의 열두 아들들은 합당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치스런 죄인들로 기록되어있어야 할 그들의 이름들이 제사장의 어깨 위에 보석 같이 빛나는 이름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목자의 속을 썩여 목자에게 혼이 나아할 양이 있습니다. 목자 곁을 떠나 마음대로 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려 얼마나 목자의 속을 썩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목자는 양을 찾아 어깨 위에 짊어지며 양을 얼마나 예뻐했는지 모릅니다.(눅 15:4-6) 예수님의 어깨 위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어깨는 십자가를 지신 어깨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신 어깨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53:6)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짊어지우신 우리들의 죄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순종으로 그 짐을 어깨에 지셨습니다.

브라질에 ‘휴마이타’라는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되는 민영 교도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중범죄자들을 수용하는 교도소임에도 불구하고, 기숙사 같이 편하고 모든 것이 자유로운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높은 담장도 없고, 쇠창살도 없으며, 자유로움과 평온, 기쁨이 넘친다고 합니다. 그 비밀을 알고 싶어 하는 방문자들에게 재소자들이 안내하는 방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십자가가 있는 감옥방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감옥 안에 있고, 죄 지은 재소자들은 기숙사 같은 교도소에서 생활합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이 자기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자신들은 그 대신 자유를 얻었다는 진리 가운데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감당하심으로 우리는 속죄 받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갖고 계신 의를 받아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어깨에 빛나는 이름, 그 가슴의 보석에 새겨진 이름들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구원을 받았은즉 구원의 확신과 감격, 성장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 2. 나의 삶을 인도하심

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출28:29-30)

제사장은 판결흉패 안에 우림과 둠뭇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뭇은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를 빛으로, 완전함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백성들인 우리들은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주님을 앞서서는 안 됩니다.(느7:65)

제사장의 청색 겹옷 아래에는 방울이 달려있습니다. 방울 소리가 나면 제사장이 살아 있는 것이고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제사장이 죽은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제사장 예수님에게는 방울 소리, 생명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 빛에 이르게 됩니다. 그 소리는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십니다.(출28:31-35)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인 사무엘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다급해지니까 갑자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삼상28:6) 그의 인생 앞에 빛이 없었습니다. 왕이라는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도 어둠 가운데서 헤매다가 삶을 끝낸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우림과 둠뭇이 없는 어둠의 세상입니다. 일그러진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안에서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는 꽤 괜찮게 살고 있는 줄 착각합니다.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낙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인도함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이 어둠과 일그러진 세상에서 헤어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아론의 아들이며 제사장인 엘르아살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은 제사장 엘르아살이 내놓은 우림의 판결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해야 했습니다.(민27:21)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제사장의 우림에 따라 들어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림과 둠뭇, 빛이시오 완전하신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의 소리를 잘 듣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완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갑시다. 예수님 제사장 직분은 나의 죄를 짊어지신 것이고,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제사장 옷은 우리도 입어야 할 옷입니다. 아름답고 영화로운 천국을 보며 삽시다.

### ○ 나눔의 시간 ○

1.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은 무엇인가요?
2. 제사장의 어깨위의 두 보석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3. 우림과 둠뭇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나요?
4.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는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는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